

만남

2020년 10월
통권 189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묵주기도 성월에-----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잔치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4
교리	신앙 산책-----	7
신앙의 오솔길	-----	9
기도하는 삶	-----	10
지혜로운 삶	-----	12
영적 상담	-----	14
나눔	-----	16
알림	-----	17
축일을 축하합니다	-----	18
전례	-----	19
공동체 소식,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0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교회 안에서의 평신도의 사명

평신도, 특히 여성들이 세례성사의 은총으로 교회 안에서 더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묵주기도 성월에

10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를 위하여 묵주기도를 바치는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교회는 한 달 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보편적인 기도인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신비를 묵상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것을 신자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열 번의 성모송과 각각 한 번씩의 주님의 기도, 영광송을 한 단으로 하는 5단 묶음을 넘기며 묵주알을 만지면서 기도문을 암송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의미하는 라틴어 로사리움(rosarium)은 <장미 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로사리오는 <장미 꽃다발>을 뜻합니다. 결국 묵주기도란 <장미 꽃다발 기도>를, 묵주알 하나는 <장미 한 송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묵주기도의 유래는 초대교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신자들은 기도 대신 장미꽃다발을 바치기도 했으며, 신자들은 장미관을 쓰고 순교한 순교자들의 시신을 몰래 거두면서 꽃송이마다 기도를 바쳤다고 전합니다. 한편 이집트의 은수자(隱修者)나 독수자(獨修者)들은 작은 돌멩이나 곡식 낱알을 머리에 쓰는 관처럼 둥글게 엮어 하나씩 굴리면서 기도의 횟수를 세었다고도 전해집니다.

환희, 고통, 영광의 15단 묵주의 기도가 자리를 잡게 된 것은 15세기 말경이며, 오늘날과 같은 묵주기도는 교황 비오 5세가 1569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빛의 신비를 추가했습니다.

묵주기도가 급속히 확산된 것은 1830년 이후 세계 각처에서 발현한 성모 마리아가 묵주의 기도를 열심히 바칠 것을 권고하면서부터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1830년 파리, 1846년 라 살레트, 1858년 루르드, 1917년 파티마에서 발현할 때마다 묵주의 기도를 잘 바치도록 간곡히 청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묵주의 기도는 복음 전체의 요약이자 구원적인 강생에 집중하는 기도며 그리스도께 대한 끊임없는 찬미이고 순수한 기도”(46항)라고 정의하십니다. 결국 묵주기도 신심은 사람이 되시고 만인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비를 함께 한 성모님을 통해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환희), 공생활(빛), 죽음(고통), 부활(영광)을 묵주기도를 통해 묵상하면서 그리스도 구원사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도 묵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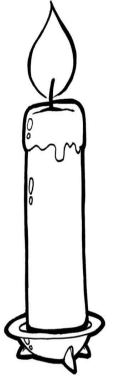
묵주기도 봉헌을 단순히 양적인 숫자로 계산하는 것은 그다지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꾸준히 기도를 한다는 점에서는 필요합니다. 물론 단순히 숫자를 늘리기 위한 기도보다는 한 단을 바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바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마태 22,1-10)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8장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당신의 초대에 기꺼이 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 언제나 저희들을 초대하시는 주님, 당신께 저희의 사랑을 드리나이다.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복음 2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2 1 (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또 여러 가지 비유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2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3 그는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4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일렀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칫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여라.’
5 그러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으로 가고 어떤 자는 장사하러 갔다.
6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종들을 붙잡아 때리고 죽였다.
7 임금은 진노하였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다.
8 그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구나.



22 9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너라.’
 10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잔칫방은 손님들로 가득 찼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
 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다음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어느 순간 하느님의 초대를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주십시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역사는 끊임없이 당신의 구원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 반대방향에서 하느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인간의 타락, 배신,
 이중적인 모습, 아픔, 상처가 만들어 낸 신앙 고백입니다.

복음 역시 하느님과는 반대방향으로 향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인잔
 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정작 세상일에 빠져서 임금의 초대를 무시합니다.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 놀라서 확인하
 고 또 확인하며 주변 사람에게 자랑하겠지요. 그런데 그 대통령보다 더 크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분의 초대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사
 람들처럼 온갖 세상사의 일을 처리하고, 바쁘게 사느라고 이 초대는 뒤로 미루
 거나 주님과 타협합니다.

천상잔치는 다양합니다. 미사, 봉사활동, 단체 활동, 나눔, 봉헌, 용서, 사랑 등 주변의 참 많은 것에서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천상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고 합니다. 결국 선택된 사람은 하느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 나가는 사람, 초대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지상에서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것이 천상예복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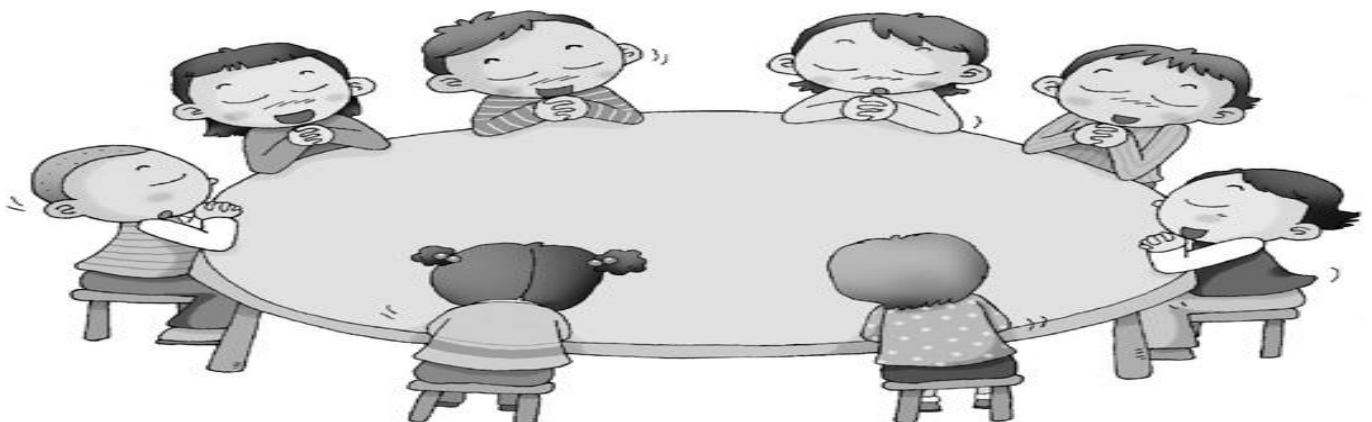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68장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2절과 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7. 부활찬송

1년에 한 번, 부활전야 미사 때 듣는 노래 소리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 성당 내의 모든 등을 다 끄고, 각자 불 밝힌 초 하나를 바라보며 신부님이 부르시는 부활찬송이 그 노래입니다. “용약하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로 시작되는 부활찬송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장엄한 선포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많은 행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장 분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무엇일까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천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기적(마태 14,13-21)일까요? 수많은 나병환자를 치유하신 기적(루카 17,11-19)이나 물위를 걸으신 기적(마르 6,45-52)일까요? 아니면, 죽은 라자로를 살리신 기적(요한 11,38-44)일까요?

이에 대해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1코린 15,14).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 진리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으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초기 교회공동체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부활은 신앙의 중심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기원 후 56년경,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흘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1코린 15,3-5).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께서 공생활을 통해 행하시고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해 주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성부 하느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신적 권위의 표현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쳐부수고 부활하셨으며,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바오로 사도처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4)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닦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위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8. 부활의 빛으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께서서는 왜 태어나셨나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은 다 사실 인가요?” “마귀를 내쫓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를 살리고, 심지어 물위를 걷고 한 모든 일은 정말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고, 어떠한 대답을 해야만 할까요? 예수님께서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는 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읽고, 그 말씀에 맞들이고,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통해 예수님께서서 왜 그리스도이신지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특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복음서로 눈을 돌려봅시다. 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활은 목수의 아들로써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한 인간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시는가에 대한 대답이 더 이상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태어나심, 즉 강생에서부터 이미 하느님의 외아들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의 눈으로, 그 신앙의 눈으로, 복음을 다시 읽게 되면, 이해하지 못했거나 믿기 어려웠던 내용들을 다시금 깨닫고 믿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 요한복음은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요한 2,13-22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을 정화하시며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데 마흔 여섯 해나 걸렸는데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정말?’ 제자들 역시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을 체험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부활의 빛을 받아 신앙의 눈으로 읽는 복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은 진실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서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하느님 백성들을 대하셨는지,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 왜 태어나셨는가?” 이 질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인간적인 대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381년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채택된 그리스도교 신앙 고백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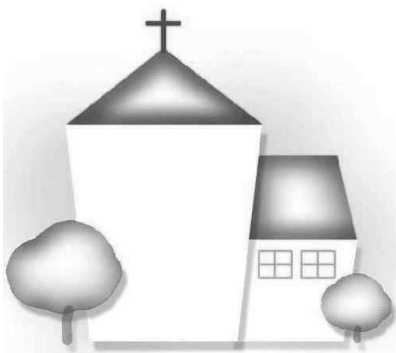
❖ 성령의 바람결(최영숙 데레사)

성령의 바람결이 닫힌 마음의 문을 살며시 열고서
울리는 사랑의 종소리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려는데
마음을 두드리던 종소리가 성령의 부르심으로 들려
조용히 일어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따라나선다.



하얀 구름이 떠도는 하늘가 아름다운 꽃길을 따라
지평선 저 멀리서 들리는 파도소리와 갈매기 울음에
외로운 마음 달래가며 바닷가모래 위를 걸어가는데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야만 하고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키며
성체는 빵이 아니고 함께 살아계시는 성령님이시다.”
라고 성령의 바람결이 가슴속을 품으며 알려주는 듯
바다에 파도처럼 아름다운 인생을 머리에 그리면서
하늘에 구름처럼 스쳐가는 세월을 마음에 새겨가며
대지에 초원처럼 펼쳐지는 세상을 영혼에 담아두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성령의 하느님께 감사드려라!

성령의 바람결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일고
가슴을 열어 귀를 뚫고 영혼을 깨워 눈을 뜨게 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하고 사람마음을 열도록 하여
삼위일체로 한분이신 하느님의 신비를 묵상케 하네!



기쁨도 슬픔도 행복도 불행도 느껴가며 사는 인생길
하느님께서 축복해주신 곳에 사랑의 꽃이 피어나고
사랑의 꽃이 피어난 곳에서 은총의 열매가 익어가며
성령의 바람결이 스쳐간 곳에 평화의 꽃이 피어나고
평화의 꽃이 피어난 곳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며
너와 내가 모여서 기도한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곳에서 하늘 문이 열리게 되리!

◆ 예수님 때문에(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자발적으로 고통이란 어려움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름’보다는 ‘마음의 평화’라는 비율이 높습니다. 세상적인 일이 어려우니, 예수님으로부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목적이지만, 그 수단을 십자가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 때문에, 즉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고통, 시련 등을 십자가라고 생각하며 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단지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뒤에 되살아나는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을 버림’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요?

한 선교사 분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선교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선교사의 어려움은, 몸이 선교지에 적응하다 보면, 때때로 건강이 따라가지 못하기도 합니다. 선교사 분은 병이 생겼고, 그 나라에서 링거 주사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링거 주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지원해 준 링거가, 유효 기간이 지난 약이었습니다. 선교사 분은 잘못된 링거 주사를 맞고, 건강이 악화되어, 선교사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장시간 비행기를 탈 체력이 되지 않아서, 출발 전에 수면제를 먹고 잠들었다가, 도착 후에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났습니다. 선교사 분은 공항에 마중 온 분들을 만나자마자, 쓰러졌습니다. 이후 선교사 분은 한국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쉽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고통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이주민 분들이 가정 폭력, 산업 재해 등 많은 고통 속에 지내는데, 제가 그분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보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 분은 예수님 때문에 건강을 잃었지만, 그 고통을 십자가로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계셨습니다. 저는 참으로,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될 수 없기에, 우리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 한 선배 수사님이 소임을 하는데 있어서, 일손이 필요했습니다. 제게 부탁을 했고, 저는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도움을 주러 갔는데, 선배 수사님은 도리어 제게 늦었다면서 화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도와주러 왔다가, 도리어 화와 짜증을 받았기 때문에, 제 마음에서는 화가 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제 안에는 화가 있었고, 화풀이 식으로, 다 풀고 싶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내게 화가 있지만, 내 선에서 끝내면, 더 이상 화가 공유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 화를 풀 수 없었기에, 주님께 화살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시 선배 수사를 만났을 때는 불편했지만, 곧 마음이 예전처럼 풀렸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다 풀지 않고, 화를 주님께 맡기며, 제 안에서 풀어버렸습니다. 화풀이 대화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늘 어렵지만, 늘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줍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늘 어렵고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마태 19,26)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세대라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이 걸림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수사님은 피정 중에, 예수님을 따름을 고민해 보았고, 유튜브를 끊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이 예수님을 기억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십니다. 개인적인 노력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스마트폰을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고 절제하면 되지만, 어렵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사무실에 둡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도구를 절제하는 노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나 자신은 무엇인가? 다음은 부활을 희망하며,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름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인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마태 16,24)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내야겠습니다.



★ ‘어둔 밤’ (서보호 라이문도 신부님)

영성생활은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 생활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그 어떤 곳에서도 얻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경험하듯이 영성생활이 항상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유도 없이 영적 메마름으로 힘든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기쁜 영성생활 중에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시간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성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영적 어둠’, ‘어둔 밤’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어둔 밤’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지옥의 영혼들은 어떠한 고통을 겪을까요? 가장 큰 고통은 ‘하느님의 부재’에서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기쁨과 행복 또한 더 커질 것입니다. 어둔 밤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 겪게 되는 시간입니다. 갑자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영적 메마름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요. 엄마의 손을 놓친 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가서는 사랑하는 이를 찾기 위해 밤거리를 헤매는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을 걷는다면 작은 불빛 하나라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불빛을 찾으면 그것만 보고 걸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 영적 메마름으로 고통을 겪지만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열정은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바탕이 되어 영성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 ‘어둠의 밤’이라는 시간을 바라본다면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신을 성숙시켜 하느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소중한 시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걸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걸음마를 가르칠 때 부모는 아이의 손을 잡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손을 놓고 조금 떨어져 아이가 걸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혼자 서서 걸어야 하는 상황이 당황스럽고 두려워

몇 걸음 걷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처음으로 부모의 손에서 벗어나 혼자가 된 상황, 스스로 걸어야 되는 상황이 아이에게는 어둔 밤의 상태와 같습니다. 이때의 어둔 밤은 아이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스스로 걸을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 됩니다. 처음에 울며 당황하던 아이는 부모에게 다가가기 위해 조금씩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걷게 되면 기어 다닐 때와 달리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안기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많은 곳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에게 어둔 밤은 부모와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과정이 됩니다.

이처럼 어둔 밤은 주님을 찾기 위한 열정을 키워 믿음, 희망, 사랑이 더욱 굳건해지게 합니다. 터널을 통과하면 밝은 빛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둔 밤은 터널 안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터널을 통과하면 그 전에 보았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둔 밤을 통해 우리는 더 밝은 빛 속에 머물게 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둔 밤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가는 여정 중에 언제든지 어둔 밤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경험을 통해 더욱 성숙될 수 있습니다.

어둔 밤을 겪게 될 때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이런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그 노력은 자신의 능력으로 주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능동적으로 주님을 찾았다면, 점점 수동적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세로 바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마리아의 자세처럼 온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더욱 불태워야 합니다. 어둔 밤을 겪을수록,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수록 주님께 맡기는 마음은 커져가게 되고, 그분과의 만남은 한없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만남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합니다. 어둔 밤을 통한 성숙은 이렇게 점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질문 : 요즘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면 말하기가 겁이 납니다. 글을 잘못 올리거나 말실수를 하면 사방에서 성토하는 글들이 덩벼들고 심지어는 인격모욕 차원을 넘어 아예 사람의 인생을 말 그대로 작살내는 것을 보면서 저 같이 소심한 사람은 그저 겁만 납니다. 자살하는 연예인들 심정이 이해도 되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런 병적인 현상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홍성남 신부(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소장)

형제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말 속에 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소위 삼류언론사들이 퍼뜨리는 말들을 닦아가는 병적 현상이 점점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극단적 평가를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분법적으로 사람들이나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것입니다. 흑과 백, 내 편 네 편, 아군과 적군 이런 식으로 무엇이든 갈라 세워놓고 마치 인민재판 마녀재판을 하듯이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나라에 어른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정서가 우울증 모드로 접어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윤리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심리치료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병적인 상황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일까요? 심리학자들이 관찰한 결과, 사람은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오랫동안 살다보면 심리적으로 잔인해져 무리 가운데에서 약한 자를 골라서 공격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소위 무리의 공격성을 해소할 희생양을 찾는 병적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지금 상황이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과 무력감에 시달리면서 국민 정서가 우울 모드로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는 형편이 달라지지 않으니 몸은 자유로우나 정신은 이미 감옥 안의 죄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는 아

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도 정신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회적 병리현상을 위정자들이 나서서 치유해야 하는데 때로는 위정자들이 더 상황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오래 전부터 위정자 중에서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하려고 외부에서 희생양을 찾는 변칙적인 방법을 비일비재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안에서 일어난 마녀재판이나 공산혁명 중에 일어난 인민재판, 2차 세계대전 당시 고지식하기로 소문난 독일 국민이 히틀러의 연설에 넘어가서 유대인 학살에 동의한 것 등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님 역시 그런 의미에서 희생양이 되신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현상들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은 미사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내 탓이요.’를 해야 합니다. ‘내 탓이요.’란 무조건 내 탓으로 여기란 말이 아니라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자신의 문제를 보라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나와는 무관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분노하고 심지어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은 반동 형성 즉 상대방에 대한 부러움이 지나쳐 시기 질투심으로 반대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나 또는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정도를 넘은 비판과 비난을 서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표현 정도가 상식선을 넘어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치유책은 선행을 하는 습관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은 동시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위해주는 행위는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장벽을 없애주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비난은 적을 만들고 선행은 나의 사람을 만든다는 가장 간단한 법칙이 지켜졌으면 하는 아쉬운 시대입니다.



❖ 기도의 힘, 하느님 사랑의 표징인 기적

오늘날 이 시대에도 다음과 같이 말하며 표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혹시 신이 내게 기적을 보여 준다면 그때는 믿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런 불신앙을 가진 이들은 정작 기적을 본다 해도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으며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굳이 표징이 없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적 자체가 믿음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기적을 믿지 않는다거나 허투루 여겨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건으로 기적을 요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영적 멘토 스즈키 히데코 수녀님이 들려주는 생생한 증인입니다. “2004년 말, 나는 수마트라 지진으로 쓰나미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쓰나미의 엄청난 공포를 겪으면서도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힘이 되어 준 것은 무엇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일본인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인간의 힘이 미치지 않는다고 느낀 순간, 매일 아침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한테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저를 구해 주었어요.’ 프랑스 여성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커다란 파도의 무서운 기운을 등 뒤로 느끼면서 산으로 도망치고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성당에서 바쳐지는 기도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 기도가 내 등을 밀어 줘서 밀어닥치는 파도보다 빨리 도망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체험을 들으면서,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가 언제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닿아 있음을 확신했습니다.”(스즈키 히데코,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 참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고통에 시달리는 인간 불행에 대한 하느님의 연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은 ‘하느님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는 표징으로써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믿고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행사 준비

존경하고 사랑하는 본당 및 지방공동체 형제자매님들과 더불어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올 수 있었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들의 만남은 벌써 50년이란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2021년도에 우리 본당 설립 50주년 기념행사를 다음과 같이 준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사 내용 *

- 1) 기념미사(14시) : 2021년 6월 26일(토),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2) 음악회(16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 3) 기념식사(18시) : 함부르크 대교구 주교좌성당 강당
- 4)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50주년 기념 책자 발간



* 행사 준비 담당 *

- 1) 기념 미사 : 주임신부님, 회장님, 전례분과.
- 2) 사진전시회 : 최장용(레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이동훈(노엘), 박성아(베로니카)
- 3) 음악회 : 김성윤(마르코), 김한솔나(리드비나)
- 4) 50주년 기념 책자 발행 : 김진호(프란치스코), 전우연(아네스), 허채열(크리스티안), 정명옥(살로메)

* 협조 사항 *



상기와 같이 5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형제자매님들께 도움을 청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로 함께하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1) 각 개인이나 가정에서 50주년 기념이 될 수 있는 사진들.
- 2) 개인들의 시, 수필, 신앙체험 등 그 외에 좋은 추억의 글들.
- 3) 5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자유기도를 전 신자분들께 청합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성당 기도모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문의 : 준비 위원장 허길조(안드레아) Tel. 5553441

❖ 10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데레사	최 영 숙	18일	루카	현 안 이 육 태 동 호 빈
4일	프란치스코	김 진 호 김 재 영	22일	살로메	정 명 옥
	프란츠	김 기 현			
	프란치스카	김 인 순 이 정 은	23일	이냐시오	윤 용 기
	프랑크	김 기 년	28일	시몬	김 동 수 최 화 영 최 순 남 리 간 재
7일	로사리아	송 화 현 조 현 영			
16일	마르가리타	강 순 행 이 가 나			

❖ 10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소화데레사	김영자(B) 정옥선(H) 김경자(H) 노금순(O)	15일	데레사	임진영(O)
4일	프란치스코	부준우(O) 임종수(O) 조우성(H)	18일	루카스	이현석(H) Setiahardja Ulung(O)
	프란치스카	윤주해(B) 안수경(O)			
	프 랑 크	정유진(H)	30일	루실라	권명옥(O)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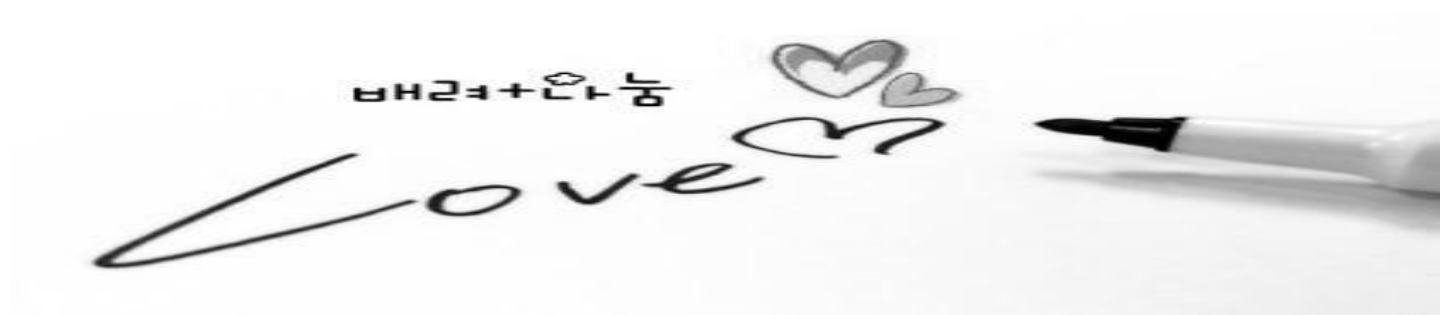


❖ 10월 성가번호 ❖

10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4일	436	226	166	416
11일	337	220	188	411
18일	63	54	186	450
25일	46	510	176	6

❖ 10월 미사 전례 봉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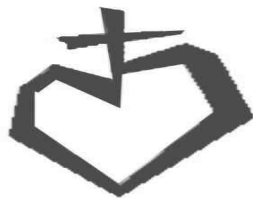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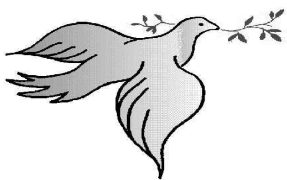
10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4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길조(안드레아) 이명자(가밀라)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X
11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주일학교	X
18일	청년회	청년회	청년회	X
25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권지연(안드레아) 김경미(이사벨라)	주일학교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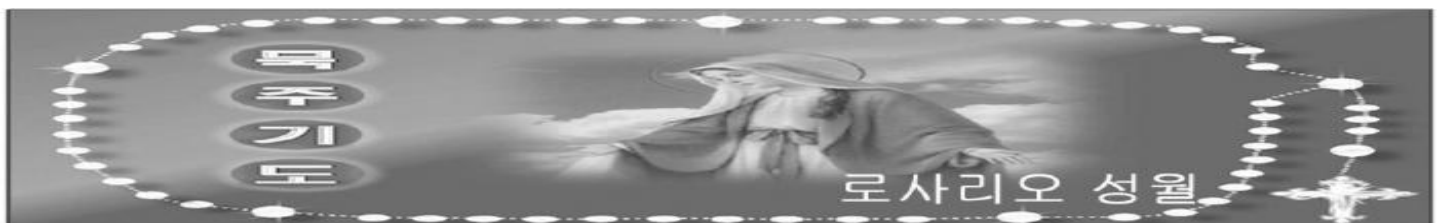
❖ Hamburg 공동체 소식

1.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해마다 주일미사 40분 전에 묵주기도를 공동으로 바쳤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공동으로 바치는 묵주기도는 없겠습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묵주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청합니다.
2. 10월에도 꾸리아, 연례회 등의 모임은 없으며 만남성당에서의 평일미사와 레지오, 그리고 예수 성심 성당에서의 주일미사만 있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3. 10월 1일 목요일은 한가위입니다. 만남성당에서 10시와 19시에 미사를 봉헌합니다. 10월 4일 일요일에는 한가위 미사를 주일로 옮겨서 봉헌합니다. 미사 중에 꽃 봉헌이 있으며, 미사 후의 공동체 나눔은 없겠습니다. 대신 떡을 준비해서 나눔 예정입니다. 풍요롭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4. 10월에도 주일미사 후 커피 나눔은 없겠습니다.
5. 공동체 가족 모두에게 어려운 때입니다. 가끔씩 안부전화라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미사를 10월부터 재개합니다. 미사 후 공동체 나눔은 없으며 좀 더 넓은 공간에서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미사를 봉헌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허명자(가밀라)
				부회장	최영숙(데레사)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총무	이정훈(요나스)
주일 학교		매월 셋째 일요일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비자교리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믿음의 샘 OJ	매월 첫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도우미 Pt.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강순행(마르가리타)
	평화의 도우미 Pt.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도우미 Pt.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반장	최종금(로사)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정정숙(아나벨)	
		3구역	반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반장	육종인(베로니카)	
			총무	이순자(마리아)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김한솔나(리드비나)	
			부회장	황혜인(율리아)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오전미사 후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여성 봉사회			담당자	이정옥(크리스티나)	
				김매자(베로니카)	
				권지연(안드레아)	

10월(묵주기도 성월, 전교의 달)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목	한가위, 국군의 날	10시 한가위 미사	
2	금	수호천사 기념일, 노인의 날		
3	토	개천절		브레멘 공동체
4	일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한가위 합동 위령 미사	
5	월			
6	화			
7	수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8	목	한로		
9	금	한글날		
10	토			오스나브뤼크
11	일	연중 제28주일		
12	월			
13	화			
14	수			
15	목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 학자 기념일		
16	금			
17	토	안티오키아의 성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		하노버 공동체
18	일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전교 주일		
19	월			
20	화			
21	수			
22	목			
23	금	상강		
24	토			
25	일	연중 제30주일	Weltmissionssonntag 2차 헌금	섬머 타임 해제
26	월			
27	화			
28	수	성 시몬과 성 유다 사도 축일, 교정의 날		
29	목			
30	금			
31	토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철현 미카엘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